내 인생에 똥 뱉기

(막7:1~23)

1.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2.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3.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4.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5.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6.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19.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20.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에 똥 뱉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 인생에 똥 뱉기’
우리가 ‘하늘 보고 침 뱉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 보고 누워서 침 뱉기.
결국 제 얼굴에 침이 떨어지지 않아요?
‘제 얼굴에 침 뱉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 인생에 똥 뱉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신기한 첫 번째 대상은 아마 똥일 것이에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그 똥을 그렇게 신기해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그 똥이라고 하는 것을 소재로(순수하게 생리적인 것으로 보는 거지요) 똥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또 악취라는 이런 것 때문에 더럽다는 인상을 다 제거하고, 우리 아기가 너무 예쁠 때 아기가 싼 똥도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런 제목으로 똥을 소재로 하고 매개로 해서 아이들에게 동물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두더지가 어느 날 아침에 지하에 있는 집에서 얼굴을 이렇게 쑥 내밀고 햇빛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만 그 머리 위에 똥이 한 무더기 올라섭니다.
그러니까 두더지가 그 똥을 치울 생각을 안 하고 똥을 머리에 인 채로 돌아다니면서 범인을 찾는 거예요.
제일 먼저 비둘기를 만납니다.
그 비둘기에게 물어봐요,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비둘기가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네 머리에 똥 안 쌌어, 내 똥은 이런 건데?’ 그러고 자기 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런 거다 가르치는 거지요, 아이들에게.
애들이 관심이 있는 게 똥이니까, 그 똥을 소재로 해서 비둘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말, 그 다음에 토끼.
똑같은 질문이 반복돼요.

말을 만나서도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아니, 내 똥은 이런 건데?’ 가르쳐요.
그 다음에 토끼 만나고 염소 만나고, 젖소, 돼지 이러고 만나는데 다 아니에요, 범인이.
마지막에 파리가 가르쳐 줍니다.
‘네 지하에 집 근처에 있는 개집에 한스라는 개가 있는데 그 개가 네 머리에 똥 쌌어’
그래서 한스가 잘 때 이 두더지가 한스 머리에다 똥을 싸고 기분 좋게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에요.
뮤지컬로도 아마 이게 공연이 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똥 얘기를 하십니다.
왜 똥 얘기를 하셨냐?
우리가 읽은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와 가지고 또 시비를 걸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어 먹었던 모양이에요.
이스라엘의 떡은 손으로 떼어 먹는 떡 아닙니까?
근데 그게 율법으로 부정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언제나 손을 잘 씻고 먹습니다, 결례법이죠.
자, 이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건 거에요.
시비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지적이지요.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거 부정하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인데, 깨끗하게 물로 손을 씻고 떡을 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여김을 받고 그 식탁이 축복을 받을 텐데, 왜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느냐?'
참~ 예수님도 까칠하신 분이세요, 무슨 콤플렉스가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아!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자들에게 '그래 맞다, 다음부터는 꼭 손을 씻고 먹어라' 왜냐하면 장로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다니까.
아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굳이 그것이 죽고 살고, 내 신념에 어떤 치명적인 치명타를 날리는 게 아닌 바에는, 그냥 그렇게 시비를 좀 피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까칠하게 나오셨을까?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적이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에 머물러 있었던 지적이라면 예수님께서도 그리 하셨을지 몰라요.
'그래 손 씻고 먹자 다음부터, 그거 좋은 지적이다, 받아들여라!'
근데 손 씻고 떡을 떼어먹는 이 일을,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청결을 유지하는 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도저히 예수님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고, 손을 씻고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깨끗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명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씻고 떡을 떼어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씻고 먹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더럽다 청결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다, 마음!
마음! 몸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몸의 차원에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떼어 먹어서 균이 들어가고 더러운 흙먼지가 떡에 묻어서 뱃속을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다.
왜냐 하면, 다 생리적으로 뒤로 나와서 똥오줌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진짜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할 때 똥오줌이 더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럽게 되는 똥오줌은 뭐냐 하면, 입으로 들어가서 몸으로 싸는 똥오줌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바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진짜 더럽게 만든 똥오줌이 뭐냐 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21절을 보면 여러분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하고 쭉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이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좋은 생각이 더러 있기는 하고 그리고 나쁜 생각도 또 부분적으로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생각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게 생각인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 한에 있어서는 다~ 더럽다는 겁니다, 다~!
다~ 더럽고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출발점이 되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 마음이 똥오줌을 싸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몸이 싸는 똥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똥이 돼서 나온다고 더럽혀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싸는 게 있는데 내 마음이 싸는 똥이 생각이고, 내 마음이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더럽혀진다 이겁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볼 때에, 철학에서 인식론이라는 게 뭐에요? 참과 거짓을 분별해 내는 힘입니다.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분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생각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생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생각이 통과 되는 곳이지, 우리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생각을 하는 게 하니라,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전유물이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한다 얘기하지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싸는 것입니다.
생각을 누는 거예요.
우리 몸이 똥을 싸듯이, 오줌을 싸듯이 생각을 싸는 것이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파스칼이 한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한, 인간은 생각을 싸는 동물입니다.
생각을 싸는 갈대입니다.

마음이 싸는 똥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의 삶이 불행하고 힘들까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우울한 날이 더 많을까요?
내가 내 인생에 똥 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입으로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서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바로 내 인생에 똥 뱉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생각한다, 자식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이 믿음 안에서는, 신념 안에서는 우리가 자식을 생각할 때는 자식이 잘 되게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믿어요.
근데 그게 내 자식이라고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 내 자식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 똥 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사업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아니면 내 인생에 내 과업이라는 영역이 있고, 내 인생에 프로젝트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 인생의 사업에 내가 똥 뱉고 있는 것이고 똥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하는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똥을 싸고 있어요.
그러니 어린 아기들이 똥 싸고 뭉갤 때 그게 찝찝하고 말라붙으면서 살이 아프고 그러니까 울어요.
기저귀를 안 갈아 주면 그거 울게 돼있지요.
그런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웁니까? 왜 우리 마음이 불쾌합니까? 왜 우리 마음이 불행하고 슬픕니까?
내 마음이 생각하면서 똥 싸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스스로가 똥 싸고 있는 거예요.
동화 속에 나오는 두더지가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하고 돌아다니는데, 물어볼 거 없어요.
내 인생에 누가 똥 쌌냐고요? 내가 똥 쌌어요.
나는 잘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 그게 내 마음이 똥 싸는 거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마가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써가고 있는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천국을 지나쳐 버렸어요.
천국을 지나치면서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아버지를 그만 지나쳐 버렸어요.
자동차 타고 간판을 못보고 지나치듯이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 지나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지나쳐 버리고 천국을 지나쳐 버렸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자식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잡았어요, take 했어요.
하나님을 miss 하고 천국을 miss 하고 자식을 take 했을 때 자식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업생각을 하는 거예요, mistake을 한 거에요.

하나님 한 분에게 다~ 드려져야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원래 책장에는 책이 꽂혀져야 되지 김치를 놓는 곳이 아니에요.
책장에는 책이 꽂혀져야 되지 화분을 놓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지저분해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만을 모셔야 되는 곳이지, 내 자식을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거예요.
돈을 붙잡습니다,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생각, 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옵니까?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miss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take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miss해 갖고 잘못된 것을 mistake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얀 블라우스와 실크 블라우스와 김치와 된장이 만난 것과 같은 거예요.
실크 블라우스에 된장을 쌌어요, 거기에서 더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더러움이 바로 하나님을 miss하고 세상 것을 take한 이 mistake로부터 더러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 버는 생각이던, 사업하는 생각이던, 집을 더 큰집을 갖겠다는 생각이던, 자식 생각이던, 애인 생각이던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똥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한, 다~ 똥입니다.
애인에 관한 생각도 똥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인생이 더러워지고 내가 더러워진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물로 씻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데 안돼요.
주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도대체.
내가 뭐 어떤데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지나쳐 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나'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 몸을 통하여 만나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나'는 죽어야 돼요. 그 '나'는 죽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자식을 붙잡고 있잖아요.
내 사업을 붙잡고, 내 애인을 붙잡고 있잖아요?
내 인생 때문에 건강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붙잡고 있는 나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지나쳐서 내 마음에서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을 지나쳐서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 '나'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내 인생은 더러움으로 계~속해서 떡 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을 때, 주님의 보혈이 나라는 인격자체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셔요.
그 다음이 문제에요, 그 다음이.
그리고 난 뒤에 또 다시 하나님을 miss하고 세상 것을 마음이 딱 take 해서, 세상 것을 take 하면 증거가 뭐로 나타납니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세상 것을 붙잡으면 똥 싸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음식을 먹으면 몸이 똥 싸듯이, 내 마음이 내 자식을 먹지 않습니까? 자식을 담지 않습니까? 그면 똥 싸게 돼요,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것을 붙잡으면, 다른 것을 마음이 먹으면, 자식을 먹건, 사업을 먹건, 돈을 먹건 무엇이든지 마음이 먹으면 생각이라는 똥을 싸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하는 내 이 죄적 기질에, 십자가로 딱 벽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죽으라는 얘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로 내 마음이 take 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십자가를 먼저 바라봄으로써 죽어버려요,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끗함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과 온전한 결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의 기운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됐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miss 하고 그 동안 붙잡으며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관통해 흘러들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창조해 가면서 진행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식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서 자식이라는 영역을 내 생각이라고 하는 똥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식을 마음으로 먹었으니까, 먹은 것은 똥으로 나오게 돼있으니까.
내가 사업생각 합니까? 사업을 마음으로 take 했어요.
사업을 마음으로 집어넣었어요, 마음 안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똥을 싸는 거예요.
사업생각 하는 거지요, 사업이라는 영역에 똥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좋아 죽겠어요? 똥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정결함을 입읍시다!
그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요.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진 것은, 하나님을 miss하고 다른 걸 take해 가지고, 그것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생각이라는 똥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마음에서 이 세상 것을 내가 갖지 않으면, 쥐지 않으면, take하지 않으면 생각도 안 나와요.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데,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게 없는데 생각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생각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통과해서 이 세상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신나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인생에 내 스스로가 똥을 뱉으면서 살아갑니까?
자식과 아내와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직장동료에게, 내 생각을 말합니다.
'My opinion' 내 생각에는.
내가 똥 싸기에요, 똥 뱉기입니다.
그러지 마십시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정결케 된 마음으로 그 정결을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는 한 거기에 건전한 생각, 창조적인 생각, 멋진 생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는 한 그 모든 것은 다 똥을 싸는 것이고, 내 인생에 똥 뱉기에 불과한 것임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이 머물게 해 주시며, 그러기 위해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해 주시고 그 깨끗함이 십자가를 통하여 계속해서 유지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